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일’ 을 다 끝낸 후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2. <잠언>도 행하고 나서 받게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잠언을 못 받는다.
3. 어제는 운동을 하러 나갔더니, 청소할 데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며 보는데도 청소를 안 하는구나. 내 손이 가야 하나?’ 하고 심정이 상해서 혼자 쓸고 닦고 청소를 했다. 그때 ‘누가 할 일을 안 했다고 심정 상하지 말자. 내가 하자.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삼고 열심히 하자.’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곳을 청소함으로 인해 앞산 둘레 이상이 없는지도 거의 확인했다.
4. 선생이 전체를 지켜보고 ‘이상이 없구나.’ 해야 인정한다. 확인해 보니, 돌을 쌓은 곳이 그대로 잘 있었다. 그리고 앞산의 나무들도 보니, 손질해야 할 곳이 더러 있었다. 고로 앞산 정상까지 오르면서 소나무 몇 개를 전지해 주었다. 명절을 쇠기 전에 집도 깨끗이 만들어 놓고, 이외에도 부지런히 해야 될 일들이 많듯이, 월명동에도 손댈 곳이 많다.
5. 인생,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뜻있게 살아야 된다.
6. 앞산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동산을 보면, ‘왕관’ 으로 보인다. 그리고 <왕관 작품>에는 ‘개신문’ 이 있다. <승리>해야 ‘왕

관’을 쓰기 때문이다. (참조: 파리 개선문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세운 것이다.)

7.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배운다.

8. <휴거>까지 가르쳐 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주었지만, ‘생활’을 잘 못 한다. 고로 <생활>을 잘하도록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9. 하나님은 반드시 <선조들이 간 곳>으로 ‘후손들’이 가서 역사를 펴게 하신다. 왜? <선조들>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조들 땅’으로 후손들을 몰고 가는 역사를 하신다.

10. <예수님>은 ‘신약의 선조’이니, 그 후손들을 ‘신약역사’로 끌고 가셨다. 또 <모세가 간 곳>으로 그 후손들도 가게 됐다.

11.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애굽으로 갔다. 아버지가 요셉을 그리도 사랑하고 챙겼기 때문이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이 시대>도 섭리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기성에서 미움 받고, 가정에서 미움 받는 것이다.

12. <섭리사>는 하나님의 축복, 곧 ‘사랑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지가지 축복’을 받고, ‘주의 축복’을 받았기에 사탄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사탄도 그러함을 깨달아야

된다. 고로 그들과 싸울 것도 없고, 원수시할 것도 없다.

13. <축복>을 받고서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는 것’ 이 낫다.

14.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은, ‘축복’ 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도, 축복을 안 받고서 시기 질투를 안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15. <시대 보낸 자>도 축복을 받았기에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기성’ 으로부터, ‘세상’ 으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다.

16. 하나님이 “정녕코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믿음의 조건’ 을 세워야 된다. 못 세우면, <1차 종의 주관권>만 벗어나고 끝난다. 고로 ‘가나안 복지’ 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벽한 세계를 못 이룬다.

17. <돌아올 때>는 ‘믿음의 조건’ 을 세워야 제대로 돌아온다.

18. <선생>도 돌아올 때 ‘절대 믿음의 조건’ 을 세웠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때 ‘모세’ 를 원망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못 들어간 것이다.

19. <돌아올 때>는 원망하면 안 된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된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믿음의 조건, 신앙의 조건’ 을 세우

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기뻐 좋아해야 된다.

20. <야곱>도 돌아올 때 ‘믿음의 조건’을 세웠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시인할 때 돌아왔다. 이같이 <이 시대>도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시대 하나님의 섭리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지 않은 자는 ‘신부 세계’까지 못 온다.

21.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늘 감사,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종권>, <자녀권>을 벗어나 ‘완벽한 신부 세계’로 올 수 있다.

22.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한 자>는 ‘후반전 역사’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같이 한 자들은 ‘자기 선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 하나님께서 “네가 정녕코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면, 약 100~1000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23. 하나님께서 “네가 정녕코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전형 노정〉은 각종으로 많다.

- 〈섭리사를 따르다가 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해당된다.
- 〈나무〉가 다른 데로 팔렸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돌아와서 사게 된 것도 해당된다. 나무뿐 아니라 각종 물건도 그러하다.
- 환난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을 뺏겼지만, 후에 더 멋진 자들이 돌아왔다. 〈외국〉에서도 많은 생명들이 환난에 의해 나갔는데, 다른 생명들이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자기’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후자’가 돌아오기도 한다.
- 〈웁〉도 시험이 끝나고, 이기니까 더 축복을 받고 돌아왔다.
- 다른 면으로 보면, 〈물건〉도, 〈물질〉도, 〈마음〉도, 〈생각〉도, 〈행함〉도 죽었다가 다시 옛날처럼 부활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마음〉이 돌아오는 것은, 예전에는 ‘형제들에 대한 마음, 지도자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고 불신하기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한다. 왜?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이다. 〈월명동의 새들〉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나갔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다. 52종이 돌아왔다. 이러한 것들이 100~1000가지 정도 된다. 각종으로 “정녕코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뤄진다.

◎ 기도하겠습니다.